

“바울의 메시지”

사도행전 28:30-31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바울은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변화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를 향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 28:31)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노아 홍수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하고자 노력할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놓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손해일 뿐 아니라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앞에 바로서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2.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 28:31)

바울은 기독교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리나 신학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교육이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그 사람의 영적 깊이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도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재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그 깊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직접적으로 그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증인’은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일 1:1)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 손으로 만져 보았던..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증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보았습니까?” 그런데 증인이 나와서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법정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약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험한 신앙이 아니라, 전해 들은 얘기 혹은 자신의 생각에 의한 얘기들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신앙적인 체험을 갖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실제 삶에 실천하는 단계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한다면 경험한 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도 머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지는 못합니다. 기도의 유익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으나 삶에서 실천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모두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리새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 장을 가리켜 보통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동사'(verb)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4 절)
-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으며(7 절)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8 절)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의 개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믿음'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범주를 넓혀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까지 확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우리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절에는 그 예배를 통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예배가 무엇일까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존의 신앙 수준과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 28:30-31)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내용이 뒤에 이어질 것만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할자로 기록된 사도행전은 28 장으로 끝이 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도행전 29 장부터 기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또 우리 교회가 29 장 이후의 사도행전을 써 나갈 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법정에서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자신의 견해를 말한다면 그는 증인석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증인석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견해나 느낌일까요? 아니면 직접 경험한 것일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히브리서 11 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며 모두 '동사'로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개념과 오늘 말씀에서 다루었던 '믿음'의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